

청바지의 취급상 주의표시에 관한 연구

홍 지 명 · 신 혜 원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A Study on the Care Labels of Blue Jeans

Ji Myung Hong · Hye Won Shi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1998. 4. 16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washing methods specified on care labels of blue jeans and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specification. In the study, the present condition of care labels on 100% cotton blue jeans was investigated and the consumers' washing methods of blue jeans were surveyed. Also, the shrinkage of blue jeans after washing was measured.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spite of the fact that same materials of 100% cotton denim were used in all cases, washing signs on care labels showed very differently and the symbols of hand wash, using light duty detergent, no wring, drying in shade, and warm ironing with a covering cloth were seemed to be unsuitable. It means that manufacturers stick careless unsuitable care labels demanding too high level of care for the protection of blue jeans.
2. Almost all consumers didn't follow instructions proposed on care labels because they didn't anticipate problem. In reality, most consumers washed blue jeans by machine in cold water with heavy duty detergent at standard course, dried under the sun, and didn't iron. The 40.8% of consumers didn't have problems even if they didn't follow instructions. Most problems happened after washing were shrinkage in length, but in shrinkage test after 15 times washing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erious shrinkage problem.
3. For ideal care of blue jean, it is necessary for manufacturer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are label and to stick correct appropriate care label. Also, consumers have to trust and follow instructions on care label.

Key words: blue jeans, care label, washing method, shrinkage, appropriateness; 청바지, 취급상 주의표시, 세탁실태, 수축률, 적합성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논문제재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I. 서 론

우리 나라에서는 1967년에 공산품 품질관리법이 최초로 제정되었고, 1969년 10월 공업진흥청 고시로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섬유제품의 품질표시가 시행되었으며, 1982년 2월 섬유제품분야의 상품별 표시기준 및 방법이 고시된 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섬유제품 15종이 품질표시 상품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고, 여기에는 실, 원단, 솜, 남성의류, 여성의류, 셔츠류, 유아복, 양말류, 브래지어, 모포, 다운의류, 이불 및 요, 한복, 침낭, 기타 섬유제품이 포함된다¹⁾. 섬유제품분야 상품별 품질표시 사항은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 호칭 및 신체치수(제품치수) 표시, 가공여부표시, 취급상 주의표시, 제조업체명 또는 상표, 수입자명, 원산지(수입제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며 세탁 등에 지워지지 않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취급상 주의표시는 KS K 0021에 규정된 설명을 사용하여, 물세탁 방법, 염소 표백의 가부, 다림질 방법, 드라이클리닝, 짜는 방법, 건조방법 등 6종류의 기호를 조합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3종류 이상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급상 주의표시로 정보전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급상 주의표시 외에 간단한 문장 등으로 부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공산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품질경영촉진법에 의거하여 공산품에 대해 품질표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식별하기 곤란한 상품에 대하여 상품의 품질에 관한 사항과 사용상 주의를 상품별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가공)자 또는 수입자로 하여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상품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제조(가공)자 또는 수입자에게는 소비자에게 상품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표시한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소비자는 제조자의 품질표시 내용에 따라 상품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표시의 신뢰성으로 인하여 상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제조(가공)자 또는 수입자의 책임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²⁾.

현대에 오면서 상품 차별화 경쟁의 격화로 상품이 다양해지고 성능이나 품질이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의류제품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새로운 상품에 대처하기가 힘들어졌다. 또한 완전 포장 상품의 증가에 따라 내용을 직접 식별하기가 힘들며, 셀프서비스점의 증가로 대면판매(face to face selling)가 적어서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기가 힘들어져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는 합리적인 선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의 교육수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현명한 상품선택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져서 품질표시의 중요성은 한층 강조되고 있다²⁾.

품질표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 외에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취급하는 상품의 품질 내용을 밝히고 품질에 책임을 짐으로써 상품과 기업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으며 기업의 판촉이 되기도 한다. 또한 품질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원칙에 합치하며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촉진하고 현명한 자유선택을 통한 소비자 주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²⁾.

이처럼 품질표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3~8)}. 전경란³⁾은 1981년 여대생을 대상으로 섬유제품의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대부분이 취급상 주의표시대로 의복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난행⁴⁾은 서울 시내 여대생들은 의복 구매시 레이블을 반드시 확인하는 경우는 높지만 세탁시 취급상 주의표시를 따르는 경우는 낮다고 하였다. 또한 전효순⁵⁾은 서울 시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같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배춘화와 이미식⁶⁾은 서울 시내 주부 및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레이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나 레이블에 대한 확인정도나 이해도, 신뢰도 및 준수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취급상 주의표시에 따라 세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레이블에 따라 세탁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취급상 주의표시를 따라 세탁한 경우라도 제품의 손상을 경험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섬유제품을 제시하고 어떻게 세탁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취급상 주의표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이 많게 나타났다. 박찬애⁷⁾는 초·중학교 어머니를 대상으로 품질표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섬유제품 구매시 치수표시를 확인하는 경우는 많으나 취급상 주의

표시를 확인하는 경우는 낮으며 고학력일수록 품질표시를 확인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세탁시 52.1%는 취급상 주의표시를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판단하여 세탁하고 있다고 하였다.

기준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비자들의 취급상 주의표시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도는 점점 향상되고 있으나, 실제 세탁시는 취급상 주의표시를 따르지 않고 기준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품질표시제도에 의한 품질표시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품질표시의 부적합성에서 기인된 품질표시에 대한 신뢰도의 저하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00% 면 데님 청바지로 대상을 한정하여 취급상 주의표시의 부착실태를 살펴보고, 소비자들의 청바지 세탁실태 및 실제 가정에서 많이 행하는 세탁방법에 따라 세탁했을 때 청바지의 형태 변화를 살펴보아 청바지에 부착된 취급상 주의표시의 적합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청바지의 취급상 주의표시 조사

1997년 8월부터 9월까지 서울 시내 백화점 5곳과 채래 시장 2곳에서 100% 면 데님으로 만들어진 청바지 총 109개의 취급상 주의표시를 가격대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표 1> 조사된 청바지의 가격별 분포

분류	조사된 수(%)
고가브랜드(5만원이상)	39(35.78%)
중가브랜드(5만원미만~2만원이상)	39(35.78%)
저가브랜드(2만원미만)	31(28.44%)
계	109(100%)

2. 청바지의 세탁 실태 조사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1997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가정에서의 청바지 세탁방법을 묻는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250부 배부하여 181부를 회수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미비한 것을 제외하고 133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청바지 수축률 실험

청바지 세탁 실태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가정 세탁에 있어서의 청바지 수축률을 조사하였다. 시판되는 100% 면 데님 소재의 청바지 중에서 고가브랜드 한 종류와 중가브랜드 한 종류를 선택하여 각각의 청바지에 대해 영업용 드럼 세탁기 (한영전기 HY T57 A)에서 상온수, 합성세제(파워크린)를 사용하여 표준 코스에서 세탁하였다. 또한 가정용 기계건조기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건조방법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 각각의 청바지를 실내에서 자연 건조하거나 기계건조기에서 건조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세탁과 건조가 끝난 청바지는 KS K 0465 가정용 자동세탁기법에 의하여 수축률을 계산하였다. 수축률 실험은 경사방향에 대해서만 행해졌으며 25cm길이로 10번에 표시한 것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에 사용하였고 세탁은 15회까지 반복 실시되었다. 수축률 조사에 사용된 청바지의 치밀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청바지의 치밀구조 특성

분류	조직	밀도(경사수×위사수/inch)	두께(mm)
고가브랜드	능직	55×47	1.05
중가브랜드	능직	55×47	1.04

III. 결과 및 고찰

1. 청바지의 취급상 주의표시 실태

조사된 청바지의 품질표시 중 취급상 주의표시의 유형을 <표 3>에 나타내었다. 조사된 109개 제품 중 저가브랜드에 속하는 3개 제품에서는 품질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으나 나머지 모든 제품은 가격대에 관계없이 취급상 주의표시를 4가지 이상 조합하고 있어 공산품 품질표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가지 이상의 표시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었다. 취급상 주의표시 유형 중 물세탁방법, 표백방법, 건조방법, 다림질방법의 4가지를 조합해 표시한 것이 58.7%로 가장 많았다.

<표 3> 조사된 취급상 주의표시 유형

(빈도수(%))

유형 분류	물세탁 표백 전조 다림질	불세탁 표백 짜기 전조 다림질	물세탁 표백 짜기 전조 다림질	물세탁 (세탁기세탁, 손세탁) 짜기 전조	물세탁 짜기 전조 다림질	불세탁 드ライ클리닝 표백 전조 다림질	물세탁 드라이클리닝 표백 다림질	표시없음	계	
고가 브랜드	25(22.9)	4(3.7)	2(1.8)	1(0.9)	0(0)	0(0)	3(2.8)	4(3.7)	0(0)	39 (35.8)
중가 브랜드	25(22.9)	8(7.3)	0(0)	1(0.9)	1(0.9)	0(0)	1(0.9)	3(2.8)	0(0)	39 (35.8)
저가 브랜드	14(12.9)	9(8.3)	0(0)	0(0)	0(0)	1(0.9)	3(2.8)	1(0.9)	3(2.8)	31 (28.4)
계	64(58.7)	21(19.3)	2(1.8)	2(1.8)	1(0.9)	1(0.9)	7(6.5)	8(7.3)	3(2.8)	109 (100)

<표 4>는 조사된 취급상 주의표시에서의 물세탁과 드라이클리닝 표시를 나타내고 있다. 물세탁 표시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드라이클리닝만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으나 물세탁과 드라이클리닝을 함께 표시한 경우도 다소 나타나고 있다.

물세탁 표시의 경우, 세탁기세탁 표시가 45.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손세탁도 39.6%로 세탁기세탁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고가나 중가브랜드에 비해 저가브랜드에서는 세탁기세탁 표시보다 손세탁 표시가 더 많이 나타났다. 세탁기세탁 표시는 손세탁도 가능함을 의미하나 손세탁 표시는 세탁기세탁이 불가능함을 의미하므로 손세탁 표시는 청바지를 세탁기로 세탁해서는 안 된다는 표시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주부들

이 가정에서 세탁하는 방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손세탁 표시는 제조업체에서 품질표시 부착시 자사제품에 대한 지나친 보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복잡해지는 현대 생활패턴과 여성들의 사회진출 기회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의복관리에 소비되는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절실하며, 세탁기의 보급률 증가로 기계세탁이 일반화되었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취급상 주의표시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세탁방법 표시기호 이외의 주의사항은 또 다른 레이블로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많은 제품들이 단독세탁에 대한 언급을 따로 하고 있었고 물이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는데 이러한 주의사항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대부

<표 4> 조사된 취급상 주의표시에서 물세탁과 드라이클리닝의 비율

(빈도수(%))

유형 분류	물세탁 표시만 있는 경우			드라이클리닝 표시만 있는 경우	물세탁과 드라이클리닝 표시가 물 다 있는 경우		계
	세탁기세탁 표시만 있는 경우	손세탁 표시만 있는 경우	손세탁 표시와 세탁기세탁 표시가 함께 있는 경우		물세탁과 드라이클리닝이 모두 가능한 경우	물세탁만 가능하고 드라이클리닝은 불가능한 경우	
고가 브랜드	17(16.0)	15(14.2)	0(0)	0(0)	5(4.7)	2(1.9)	39(36.8)
중가 브랜드	21(19.8)	13(12.3)	1(0.9)	0(0)	4(3.8)	0(0)	39(36.8)
저가 브랜드	10(9.4)	14(13.2)	0(0)	0(0)	4(3.8)	0(0)	28(26.4)
계	48(45.3)	42(39.6)	1(0.9)	0(0)	13(12.3)	2(1.9)	106(100)

<표 5> 물세탁 온도와 세제표시

(빈도수(%))

유형 분류	온도만 표시				온도와 중성세제 사용 표시	온도표시 없는 경우	계
	30°C	40°C	50°C	60°C			
고가 브랜드	1(1.1)	4(4.4)	1(1.1)	0(0)	26(28.6)	0(0)	32(35.2)
중가 브랜드	5(5.5)	3(3.3)	1(1.1)	1(0.9)	25(27.5)	0(0)	35(38.5)
저가 브랜드	2(2.2)	5(5.5)	0(0)	0(0)	14(15.4)	3(3.3)	24(26.4)
계	8(8.8)	12(13.2)	2(2.2)	1(0.9)	65(71.4)	3(3.3)	91(100)

분이었다.

물세탁과 드라이클리닝을 모두 표시한 경우 중 물세탁과 드라이클리닝이 모두 가능하다고 표시한 경우가 12.3%이었는데 만일 물세탁이 적절하고 가능한 제품을 드라이클리닝도 가능하다고 표시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혼란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가 드라이클리닝을 선택시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제품의 품질을 정직하게 표시해야 할 것이다.

물세탁 표시만 있는 경우에서의 온도표시와 세제표시를 <표 5>에 나타내었다. 세제표시 없이 온도만 표시한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세제에는 제한이 없고 온도만 제한한 표시로써 100% 면 소재의 청바지에 대한 적절한 세탁표시라고 생각되나 이렇게 표시된 것은 25.1%로 작게 나타났다. 그러나 온도와 중성세제 사용표시를 한 것은 71.4%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100% 면 소재의 청바지를 중성세제로 세탁하라는 표시로 이것이 과연 올바른 표시인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표시는 제조업체의 일방적인 편의적 표시방법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고발에 대비한 지나친 보호책으로 여겨진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업체에 유리할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표시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여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품이 가진 성능을 최대한 출직하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고가브랜드는 32개 제품 중 81%인 26개 제품에서, 중가브랜드는 35개 제품 중 70%인 25개 제품에서, 그리고 저가브랜드는 24개 제품 중 58.3%인 14개 제품에서 중성세제 사용을 표시하고 있어서 고가브랜드일수록 과잉표시를 많이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저가브랜드 3개 제품에서는 물세탁 표시만 있고 온도 표시가 없는 잘못 표기된 경우도 있었다.

온도표시에서는 30°C가 80.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40°C가 13.2%였으며 40°C 이상의 온도에서 세척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경우는 3.1%에 불과했다.

표백표시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6>에 나타나있다. 조사된 취급상 주의표시 중 총 104건에 표백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표백표시를 한 모든 경우에서 염소표백을 금하고 있었고 때로는 기호로 표시한 것 외에 설명으로 염소 및 산소계 표백제 사용을 금하고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14.4%가 염소 표백이란 글씨가 없이 기호 모양만 나타냈는데 이는 표기가 잘못된 경우이며 이러한 잘못된 표기는 저가브랜드일수록 많이 나타났다.

<표 7>에 짜기 표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나타내었다. 짜기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는 조사된 청바지 중 24.8%에 해당하는 27개 제품뿐이었다. 그 중 51.9%는

<표 6> 표백표시 (빈도수(%))

유형 분류	염소표백 염소표백 안됨	염소표백 안됨 (세모기호내에 염소글자 없음)	계
고가 브랜드	37(35.6)	2(1.9)	39(37.5)
중가 브랜드	34(32.7)	4(3.8)	38(36.5)
저가 브랜드	18(17.3)	9(8.7)	27(26.0)
계	89(85.6)	15(14.4)	104(100)

<표 7> 짜기표시 (빈도수(%))

분류	유형			계
		짜지 못함	약하게 짜지 못함	
고가 브랜드	5(18.5)	0(0)	2(7.4)	7(25.9)
중가 브랜드	2(7.4)	2(7.4)	6(22.2)	10(37.0)
저가 브랜드	4(14.8)	0(0)	6(22.2)	10(37.0)
계	11(40.7)	2(7.4)	14(51.9)	27(100)

약하게 짜기를 권하고 있었고 40.7%는 짜지 말도록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2건에서는 짜지 못하도록 한 표시에 약하게란 글씨를 써넣고 있어서 잘못된 표기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표 8>은 건조표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건조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는 조사된 취급상 주의표시 중

88.1%인 96건이었다. 그 중 자연건조 표시가 있는 것이 84건으로 주를 이루며 자연건조 표시인 경우에는 모든 제품이 그늘에서 건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65.6%가 옷걸이에 걸어 그늘에서 건조하도록 하고 있고 4.2%는 뉘어서 그늘에서 건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그늘에서 건조하라는 표시는 저가브랜드에 비해 고가나 중가브랜드에서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17.7%는 그늘 기호 표시 안에 옷걸이라든지 뉘어서라는 언급이 없는데 이는 잘못된 표기방법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표기방법은 저가브랜드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건조방법을 표시한 제품 중 12.5%만이 기계건조표시를 하고 있었고, 7.3%는 기계건조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5.2%는 기계건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기계건조 표시는 고가나 중가브랜드보다 저가브랜드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다림질표시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9>에 나타나 있다. 조사된 청바지 중 94.5%에 해당되는 103개 제품에서 다림질표시를 하고 있었다. 100% 면의 경우 적정 다림질 온도는 표시기호 3번인 180~210°C로 알려져 있

<표 8> 건조표시

(빈도수(%))

분류	유형			기계건조	기계건조 안됨	계
		옷걸이	뉴어서			
고가 브랜드	26(27.1)	4(4.2)	2(2.1)	1(1.0)	0(0)	33(34.4)
중가 브랜드	26(27.7)	0(0)	4(4.2)	3(3.1)	3(3.1)	36(37.5)
저가 브랜드	11(11.5)	0(0)	11(11.5)	3(3.1)	2(2.1)	27(28.1)
계	63(65.6)	4(4.2)	17(17.7)	7(7.3)	5(5.2)	96(100)

<표 9> 다림질표시

(빈도수(%))

분류	유형			계
		1 80~120°C	2 140~160°C	
고가 브랜드	0(0)	3(2.9)	2(1.9)	32(31.1)
중가 브랜드	1(1.0)	2(1.9)	1(1.0)	32(31.1)
저가 브랜드	2(1.9)	11(10.7)	0(0)	13(11.6)
계	3(2.9)	16(15.5)	3(2.9)	77(74.8)

는데 이러한 온도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는 2.9%로 매우 작았는데 저가브랜드에서는 한 건도 없었고 고가와 중가브랜드에서 각각 2개 제품과 1개 제품에서만 나타날 뿐이었다. 온도표시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140~160°C에서 다림질하도록 된 2번으로 이는 조사된 청바지가 100% 면 소재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감안할 때 다림질 온도가 낮게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낮은 온도에서의 다림질은 구김이 잘 펴지지 않아 다림질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번에서 천을 대고 다리도록 표시한 경우가 다림질표시를 한 제품 중 7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청바지에 천을 대고 140~160°C로 다림질을 하는 것이 적당한 방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이 역시 제조업체의 취급상 주의표시 부착에 대한 무성의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저가브랜드보다 고가나 중가브랜드에서 훨씬 많이 나타났다. 저가브랜드 중에는 다리미 표시만 있고 온도표시가 없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표기가 잘못 된 경우이다.

조사된 청바지 중에는 수입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수입품 중에는 원산지에서 붙인 원래의 품질표시와 다른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고, 그 대부분의 경우에 원산지에서 붙인 취급상 주의표시보다 더 주의를 요하는 방향으로 표시를 하고 있었다.

청바지의 취급상 주의표시를 조사한 결과, 제조과정에서의 특별한 방법으로 인한 변형에 대한 보호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100% 면 데님소재의 청바지에 지나치게 다양하고 부적절하게 취급상 주의표시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다양하고 적절하지 못한 취급상 주의표시는 소비자들에게 품질표시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하여 섬유제품의 관리에 문제를 놓게 되며 업체에 대한 신뢰도 또한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제조업체에서는 생산하는 섬유제품의 품질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솔직한 품질표시를 해서 자사의 품질관리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일반 가정에서의 청바지 세탁 실태

청바지를 구입할 때 품질표시를 확인하느냐는 질문에는 67명의 주부가 확인한다고 대답하였고 66명의 주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대답함으로써 50%정도만 청바지 구입시 품질표시를 확인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청

바지 세탁시 취급상 주의표시에 따라 세탁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83.5%인 111명의 주부들이 아니라고 대답하여 비록 구입시 품질표시를 확인한다고 하여도 세탁시에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나타내었다. 취급상 주의표시대로 세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취급상 주의표시를 따르지 않는 주부 전체가 청바지는 세탁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여 취급상 주의표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취급상 주의표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라기보다는 편하게 손질해서 편리하게 입을 수 있는 청바지에 대한 기존의 습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취급상 주의표시를 따르지 않는 가정에서의 일반적인 청바지 세탁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청바지를 단독세탁 하고 있는 경우는 64.9%이며 다른 유류와 함께 세탁하는 경우는 35.1%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청바지 세탁시 89.2%가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급상 주의표시 조사결과에서 약 40%가 손세탁을 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세탁기 사용시 세탁 코스는 87.7%가 표준코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가운 물을 사용한다는 경우가 59.5%,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다는 경우가 39.6%였으며 뜨거운 물을 사용한다는 경우는 0.9%인 1건에 불과했다. 사용하는 세제는 96.4%가 합성세제를 사용하고 있어 취급상 주의표시 조사결과에서 71.4%가 종성세제를 사용하도록 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표백제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았고 표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염소계를 피해 산소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경우 탈수를 하며 주로 강한 탈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취급상 주의표시 조사 결과에서 상당수 제품에서 탈수를 금하거나 약한 탈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청바지의 취급상 주의표시 조사결과에서는 그늘전조 표시가 대부분이었으나 일반 가정에서는 햇빛에서 건조하는 경우가 64.9%로 가장 많았고, 그늘에서 건조하는 경우는 34.2%로 나타났다. 기계건조기 사용이 저조한 것은 아직 기계건조기의 보급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림질은 76.6%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림질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 온도에서 다리거나 가장 높은 온도에서 다림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을 대고

<표 10> 청바지 세탁 실태

조사내용		빈도수(%)
단독세탁 여부	단독세탁	72(64.9)
	다른 세탁물과 함께 세탁	39(35.1)
세탁방법	세탁기 사용	99(89.2)
	손세탁과 세탁기 병행	7(6.3)
	손세탁	5(4.5)
	드라이클리닝	0(0)
세탁코스	표준코스	93(87.7)
	강력코스	11(10.4)
	약한코스	2(1.9)
세탁온도	차가운 물	66(59.5)
	미지근한 물	44(39.6)
	뜨거운 물	1(0.9)
세제	합성세제	107(96.4)
	비누	2(1.8)
	중성세제	2(1.8)
표백제	표백제 사용안함	89(80.2)
	산소계 표백제	20(18.0)
	염소계 표백제	2(1.8)
탈수	강한 탈수	66(59.5)
	약한 탈수	44(39.6)
	탈수 안함	1(0.9)
건조	햇볕에서 건조	72(64.9)
	그늘에서 건조	38(34.2)
	건조기에서 건조	1(0.9)
다림질	다림질하지 않는다	85(76.6)
	중간 온도에서 다림질	15(13.5)
	가장 높은 온도에서 다림질	7(6.3)
	천을 대고 다림질한다	4(3.6)

<표 11> 청바지의 품질 손상 (빈도수(%))

*복수 응답임

품질 손상 내용	취급상 주의표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취급상 주의표시를 따른 경우
물빠짐	9(7.5)	16(50.0)
줄어듬	59(49.2)	12(37.5)
기타 손상	3(2.5)	1(3.1)
손상된 경험 없음	49(40.8)	3(9.4)
계	120(100)	32(100)

다림질을 하는 경우는 3.6%에 불과했는데 취급상 주의표시 조사결과에서는 천을 대고 다림질하도록 권하고 있는 경우가 80%로 여기서도 큰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청바지의 취급상 주의표시에 따라 세탁한 경우와 취급상 주의표시를 무시하고 세탁한 경우 청바지의 품질 손상 경험에 대한 결과가 <표 11>에 나타나 있다. 취급상 주의표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40.8%가 손상된 경험이 없다고 하였고 손상 중에서는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만이 49.2%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취급상 주의표시를 따르는 경우에는 9.4%만이 손상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물빠짐과 줄어듬의 손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급상 주의표시를 따른 경우가 오히려 손상의 경험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이 그룹의 소비자들이 세탁 후의 손상정도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청바지 수축률

소비자들이 청바지를 세탁한 후 느끼는 품질 손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청바지의 가장 적절한 세탁방법이라 생각되고 실제 대부분의 가정에서 세탁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청바지를 세탁하여 수축률을 살펴보았다.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건조에 의해서는 오히려 약간 늘어나며 15회 세탁 후에도 2%이내의 변화를 보였다. 기계건조한 경우는 세탁횟수가 증가할수록 수축률이 계속 증가하나 15회 세탁 후에도 수축률이 3%이내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연건조나 기계건조 모두 고가 제품이 중가제품보다 세탁 후 변화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축률 실험에서 수축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청바지가 오래 입은 것 같은 친근감 표시와 수축방지 등의 목적으로 세탁가공을 한 뒤 판매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행하는 세탁방법으로 청바지를 세탁시 수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청바지의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타난 것은 과거에 수축 방지기공을 하지 않은 즉 세탁가공을 하지 않은 청바지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청바지의 수축을 방지할 목적으로 중성세제를 사용하고, 손세탁을 하라는 등의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취급상 주의표시를 부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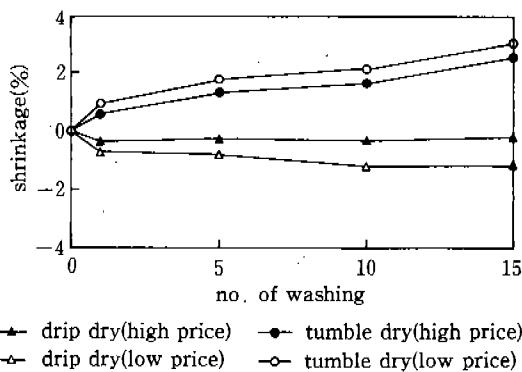


Fig. 1. Effect of washing on the shrinkage of blue jeans.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IV. 결 론

시판되고 있는 100% 면 데님 청바지의 취급상 주의 표시 실태를 살펴보고, 가정에서의 청바지 세탁실태 및 실제 대부분의 가정에서 행하는 세탁방법에 따라 청바지를 세탁했을 때의 수축률을 살펴보아 청바지의 취급상 주의표시의 적합성을 재고해 보았다.

첫째, 청바지의 취급상 주의표시를 조사한 결과 3건은 품질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으나 나머지는 4가지 이상의 기호를 조합해서 표시하고 있어서 품질경영촉진법을 잘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100% 면으로 된 청바지라는 같은 제품에 대해 취급상 주의표시는 너무 다양하고 부적절하게 부착되어 있었다. 즉, 손세탁 표시, 중성세제 사용표시, 짜지 말라는 표시, 건조표시 및 달립질표시등이 지나치게 자사제품의 보호차원에서 표시되어 있어 실제 제품의 특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세탁기의 높은 보급률이나 바쁜 현대 생활에서 의복관리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잘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둘째, 주부들의 청바지 세탁 실태를 조사한 결과 83.5%가 세탁시 취급상 주의표시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청바지는 세탁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정에

서의 일반적인 청바지 세탁방법은 찬물에서 합성세제를 사용하여 표준코스로 세탁기에서 세탁하여 탈수한 뒤 햇볕에서 말리고 다행히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취급상 주의표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청바지의 세탁 후 품질손상에 대한 조사에서는 취급상 주의표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손상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손상내용 중에서는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불만으로 나타났으나 실험결과 수축률은 15회 세탁에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와 같이 청바지 취급상 주의표시와 실제 세탁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가 취급상 주의표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제조업체의 무성의하고 부적절한 취급상 주의표시 부착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제조업체에서는 취급상 주의표시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새롭게 인식하여 정확하고 적절한 표기를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도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도 이를 믿고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섬유제품 품질표시 가이드, 한국 원사 직물시험 연구원, 7, 1995.
- 2) 양재철, 의류제품의 취급표시 적정성, 섬유정보, 25(1), 262-267, 1997.
- 3) 전경란, 우리나라 섬유제품의 품질표시에 관한 연구, 청주교대논문집, 441, 1981.
- 4) 조난행, 여대생 의복 구매행동과 레이블에 관한 태도 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6.
- 5) 전효순, 시판 의류제품의 소비자 문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6) 배준화, 이미식, 섬유제품의 취급방법과 관련된 레이블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4), 480-489, 1994.
- 7) 박찬애, 시판 의류제품의 품질표시 실태와 소비자 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 8) 박광희, 의류제품에 부착된 care label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159-166, 1995.